

출장보고서

I. 출장개요

1. 출장자 : 허인 연구위원, 박복영 연구위원, 안지연 부연구위원, 최필수 부연구위원, 성한경 교수(국민대)
2. 출장기간 : 2012년 5월 10일 ~ 5월 12일
3. 출장지 : 중국 베이징
4. 출장목적 : KIEP-PRI-CASS 회의 "The 6rd Trilateral Workshop of KIEP-CASS-PRI" 제하의 주제발표 및 토론 참석

II. 출장일정

일자	행선지	활동사항	비고
2012-05-10	서울 → 베이징	이동	
2012-05-11	베이징	KIEP-PRI-CASS 회의 "The 6rd Trilateral Workshop of KIEP-CASS-PRI" 발표 및 토론	
2012-05-12	베이징 → 서울	이동	

III. 활동 내용

- 5월 11일에 열린 "제 6 차 Trilateral Workshop of KIEP-CASS-PRI"에 참여하여 토론 및 주제 발표함.
- 제 1 세션에서는 각국의 경제동향 및 정책과제에 대해서 발표하고 토론함.
- 제 2 세션에서는 거시경제와 산업정책에 대한 논의를 함.
- 제 3 세션에서는 금융정책 및 기타 정책과 성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함.

IV. 상세내역

- 5월 11일에 열린 "제 6 차 Trilateral Workshop of KIEP-CASS-PRI"에 참여하여 토론 및 주제 발표함.
- 세션 시작 전, 각 기관에서 Opening Remark로 시작함.
 - 중국의 "Institute of Quantitative and Technical Economics"의 원장인 Ping Li, 일본의 Policy Research Institute의 부원장인 Osamu Tanaka, 그리고 국제금융팀장 허인이 연설함.
- 제 1 세션에서는 각국의 경제동향 및 정책과제에 대해서 발표하고 토론함.
 - 사회는 중국의 Yunfan Zhou가 맡았으며, 중국은 Xuesong Li, 일본은 Junji Ueda, 한국은 허인팀장이 발표함.
 - 지정토론은 중국의 Tao Zhang, 일본의 Osamu Tanaka와 한국의 최필수 박사가 하였음.
 - 중국의 성장지속 가능성을 내수진작에서 찾았으며, 일본의 복구수요 및 고령화 사회 속에서 재정건전성 유지를 언급했으며, 한국의 대외수요 둔화에 따

른 내수 진작의 필요성 등이 언급됨.

○ 제 2 세션에서는 거시경제와 산업정책에 대한 논의를 함.

- 사회는 일본의 Junji Ueda가 맡았으며, 중국은 Lei Yuan, 일본은 Daisuke Ishikawa, 한국은 성한경 교수가 발표함.
- 지정토론은 중국의 Hongwei Wang, 일본의 Takuji Kinkyo와 한국의 안지연 박사가 하였음.
- 일본은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산업이 가지는 성장가능성을 OLG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, 한국은 성장경로에서 무역정책이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발표하였고, 중국은 주요산업에 대한 성장전략을 평가하였음.

○ 제 3 세션에서는 금융정책 및 기타 정책과 성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함.

- 사회는 허인팀장이 맡았으며, 중국은 Mingtai Fan, 일본은 Takuji Kinkyo, 한국은 박복영 실장이 발표함.
 - 지정토론은 중국의 Duoduo Tang, 일본의 Daisuke Ishikawa와 한국의 성한경교수가 하였음.
 - 중국은 중국의 FTA전략과 지역협력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언급하였으며, 일본은 환율, 이자율, 추가 등을 통해서 아시아지역의 금융시장의 융합정도를 검증하였으며, 한국은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은 한국 경제성장의 원인을 분석하였음.
- 마지막으로 중국의 Mingtai Fan, 일본의 Osamu Tanaka와 한국의 박복영 실장이 연설로 마무리함.